

사우디, 감산에도 원유 수출 그대로

Saudi Aramco, 한국수출 축소 안해 ... OPEC 감산에 전문가들도 가웃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3월 원유 공급량을 크게 줄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Saudi Aramco는 한국과 일본의 정유기업 6사 가운데 4곳에 2월에 이어 평년 수준보다 7-15% 적게 공급할 계획이고, 다른 1곳에는 전월대비 1%p 높은 10%의 감량률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곳에는 2월에 비해 공급량이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미 OPEC(석유수출국기구)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하루 30만배럴 적은 양의 원유를 생산해왔고, 사우디가 OPEC과는 별도로 추가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Saudi Aramco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석유 공급계획이 다소 의외인 것으로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0>